

地理學에서의 패러다임 理解와 爭點

金 仁*

《目	次》
1. 序言	(1) 範疇的 패러다임의 關係
2. 패러다임의 觀點에서 본 地理學 思潮의 變遷	(2) 兩대 패러다임의 相異性
3. 空間分析地理學: 成熟科學으로서의 移行過程	(3) 地域地理學 對 空間分析地理學: evolution or revolution?
4. 地理學에서의 패러다임: 理解와 爭點	5. 結語

1. 序言

學問 特有의 本質과 方法論에 대한 關心과 論議는 모든 學問分野에서 필연적으로 다루어지는 과제이다. 地理學도 그 例外는 아니다. 지난 1960년대 초반에 토마스 쿨의 「패러다임」에 관한 概念의 틀¹⁾이 學問社會(academic society)에 널리 소개되면서 「패러다임」의 見地에 立脚한 自己領域의 學問發展에 대하여 變遷의 側面을 조각 정리해 보려는 노력이 學史的 側面의 研究動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傾向은 社會科學의 범주에 속하는 學問分野에서 특히 그러하며, 地理學도 그 예외는 아니다.

最近 地理學界에서는 이러한 研究動向의 趨勢에 따라서 地理哲學 思潮의 變遷, 地理學 專門領域의 原理와 方法論 및 學派의 形成에 관한

이해를 學史的 또는 패러다임적 見地에서 論議하고자 하는 立場이 여러 地理學者들間에서 제시되고 있다.²⁾

本稿에서는 지난 1世紀(대략 1870년 이후) 동안에 걸쳐 나타난 地理學 本質에 대한 哲學的 認識과 方法論上의 變化에 대한 學史的 變遷關係를 패러다임적 觀點에서 개관하고, 특히 1950년대 이후 實證主義에 立脚한 「新地理學(new geography)」의 成熟移行過程에 관한 發展脈絡을 검토하고, 新地理學에 대한 평가를 패러다임의 見地에서 接近해 보고자 한다.

2. 패러다임의 觀點에서 본 地理學思潮의 變遷

지난 1세기 동안에 발달한 地理學의 歷史를 通算하여 現代의 地理學(modern geography)으로

*서울대학교 社會科學大學 副教授

1) Kuhn, T.S., 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 金 仁, 1978, “現代 地理學의 思考와 研究方向,” 地理學論叢, vol. 5, pp. 4~14.

朴東源, 1978, “戰後獨逸의 地理哲學,” 地理學論叢, vol. 5, pp. 15~28.

柳佑益, 1978, “地理學에 있어 空間概念의 問題에 對하여,” 地理學論叢, vol. 5, pp. 55~65.

權容友, 1980, 近代地理學의 形成過程, 도서출판 한울.

外國관계 문헌은 註3) 참조.

간주한다. 最近에 와서 이 기간동안에 發達한 地理學의 變遷關係를 4個類型의 範疇로 區分하여 그에 대한 패러다임적 性格을 地理學 思潮의 變遷脈絡에 비추어 論議하는 研究가 많이 發表되었다.³⁾

地理學에서의 패러다임은 대체로 ① 地域地理學(regional geography), ② 論理實證主義(logical positivism)에 立脚한 空間分析地理學, ③ 人本主義에 立脚한 解釋學的(hermeneutic)地理學 및 ④ 社會參與問題에 立脚한 急進主義 / 批判主義(radicalism/criticism)的 地理學으로 나뉜다⁴⁾ 또 地域地理學을 現代地理學의 古典으로 간주하여 단순히 傳統地理學이라고도 하며, 古典에 대한 反作用으로 발전된 空間分析地理學을 소위 新地理學이라고 하며, 學史의 時間的 先後關係를 고려하여 60년대부터 論議가 되기 시작한 解釋學的 地理學과 70년대에 본격적으로 주목을 끌기 시작한 急進主義 地理學을 最近의 地理學(current geography)이라고 하여 이들 4개 범주에 대한 時代的 區分을 제시하기도 한다.

1) 地域地理學: 地域地理學의 基本目標은 地域의 個性記述的 研究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즉 地表의 差異에서 연유하는 地域의 固有한 特性을 밝히는데 研究의 주된 關心과 目的을 부여한다. 이와같은 地理學은 地域에 대한 記述 그 자체로서 地域地理學의 目的에 크게 부합하는 것이었다. 實際로 地球上의 發見時代와 探險時代 및 近代의 地形圖 製作時代가 人間歷史의 近代化를 수반하는 과정에서 時代의 요청에 따라서 地誌的 地理學을 實用的 學問으로 수용하던

때가 있었다.

한편 近代에서 現代 初期에 이르는 과정에서 學理(discipline)的 意識을 바탕으로한 地域地理學 研究의 흐름은 다음과 같은 맥락으로 집약된다. 즉, Ritter의 地球科學(Erdkunde)과 Humboldt의 宇宙論(Kosmos)에서 비롯되어, Richthofen의 地表科學(Erdoberflächekunde), Ratzel의 環境決定論(environmental determinism), Blache의 可能論(possiblism)과 生活樣式論(genre de vie), Schlüter의 景觀論(Landschaft)에 이어 Hettner와 Hartshorne의 地域誌(chorology)로 연결된다⁵⁾

특히 1939년에 Hartshorne의 地理學의 本質(The Nature of Geography)이 발표되면서 地域地理學의 學理的 論究는 활발해졌고, 실용적 차원에서 보다는 고고한 상아탑적 차원의 학문분위기에서 地域地理學에 대한 論議가 展開되었다.⁶⁾ 이와같은 學風을 종합하여 이른바 地誌(region)와 地域地理學이라 하고, 地理學의 한 패러다임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地表에 대한 地域區分의 模糊性和 個性記述的 接近方式(idiographic approach)의 限界性으로 인해서 地域主義的 地理學에 대한 회의를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地域地理學의 패러다임에 준하는 研究目的과 接近方法은 現代地理學의 中心에서 퇴영된 古典으로서 특히 1950년대 이후 퇴조 되고 있다.

2) 空間分析地理學: 1950년을 前後한 地理學思潮에 나타난 큰 변화는 科學的 方法論의 수용이라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소위 경험주의에 입각한 論理實證主義의 科學的 思考가 바탕이 되어

3) Guelke L., 1978, "Geography and logical positivism," *Geography and the Urban Environment*(Volume 1), pp.35~61.

Alan M. Hay, 1979, "Positivism in human geography: response to critics," *Geography and the Urban Environment*(Volume 2), pp.1~26.

Neil Smith, 1979, "Geography, science and post-positivist modes of explana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 3.

R. J. Johnston, *Geography and Geographers: Anglo-American Human Geography since 1945*, John Wiley and Sons.

4) ibid.

5) Preston E. James, 1972, *All Possible Worlds: A History of Geographical Ideas*, The Bobbs-Merrill Co.

6) Hartshorne, R., 1939, *The Nature of Geography*, Lancaster, Pennsylvania: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Shaefer, F. K., 1953, "Exceptionalism in geography: a methodological examination," *Annals of the AAAG*, vol. 43, pp.226~49.

地理學 論究의 本質과 研究方法論에 새로운 전기를 이루게 되었다. 論理實證主義는 원래 18세기를 전후하여 풍미한 神學과 形而上學的 哲學觀의 認識論에 대응하여 1930년대 Comte에 의해 주창된 科學思想이다. 이 科學思想은 경험에 입각한 객관적 절차를 통해 증명된 法則을 추구하고 이에 따라 一般的인 理論體系를 확립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法則을 추구하는 科學的 接近方法의 입장에서는 人間의 價値判斷과 倫理的 側面에 대한 客觀的 검증과 측정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論理實證主義의 理念은 價値中立的이고 主觀을 엄정배제한다.⁷⁾

이러한 科學思潮가 바탕이 되어서 과거의 地域地理學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地理學時代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른바 傳統地理學(地域地理學)에 대한 新地理學(空間分析地理學)은 論理實證的 接近方式과 計量技法을 地理學의 研究方法에 도입하여 空間分析學派를 형성하기에 이른다. 특히 論理實證主義에 입각한 地理學은 1950, 60, 70년대를 거쳐 하나의 成熟된 空間分析科學의 基礎學問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3) 解析學的(hermeneutic)地理學: 1950년대 이후 地理學에서의 論理實證接近方法은 地理學의 全分野에 급속히 파급되었다. 그러나 文化地理學, 歷史地理學, 地誌研究와 밀접히 관련된 地理學者들은 論理實證主義에 근거한 「科學的 地理學」의 學風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立場이다. 그들의 입장은 地理學은 좀더 人本主義的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므로 客觀化以前의 人間의 主觀的 觀念이 意思決定者의 主要한 要素이고 人間의 生活空間(life world)은 그것과 결합된 契體라고 본다. 따라서 그러한 生活空間을 機械論的으로 실재하는 세계로 인식하

는 것과 또 主觀을 도외시한 實證主義의 理念과 메카니즘적인 方法으로 分析하고, 說明하고, 理論化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다.⁸⁾ 따라서 그들은 「反實證主義(anti-positivism) 입장이지만 「反科學的(anti-scientific)」이 아님을 천명하며 人本主義의 本質에 立脚한 「生活空間」에 대한 이해(Verstehen)와 解釋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解釋學的인 接近方法이 도입될 것을 주장한다고 Neil Smith는 評하고 있다.⁹⁾

결국 地理學에서의 解釋學的 接近은 人間의 生活空間에서 독특한 地域現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地理學者들은 地理學의 目標을 종합으로 보고 「독특한 것」에 대한 해석을 개개인의 理論에 근거하고 그에 대한 綜合化의 過程에서 精確한 技術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리고 地理學의 오랜 숙제였던 概念化된 景觀(論) 즉, 地域(Landschaft=region=life world)에 관한 研究를 좀더 새로운 각도, 즉 哲學의 觀念論, 現象學, 實存主義와 같은 思想에 기초하여 해석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볼때, 엄밀한 의미에서 解釋學的 地理學은 종래의 地域地理=景觀研究인 傳統地理學의 범주로 回歸하는 것이다. 人本을 中心으로 한 이러한 解釋學的 地理學은 1960년대초에 거론되기 시작하여 최근에 이르기까지 新地理學의 패러다임과 맥을 달리하면서 文化·歷史地理學分野에서 그러한 研究의 共感帶를 얻고 있다.

4) 急進主義 / 批判主義的 地理學: 70년대 地理學은 人間의 社會問題를 직시하게 된 결과, 地理學은 당면한 社會問題에 대한 합당한 해결의 理論을 제시할 수 있는 學問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地理學 일각에서 크게 주장되고 있다. 따라서 종래의 상아탑적 地理學에 대해 學問自體의 研究對象과 目的性에 제도수정이 요구되고 있는

7) Johnston R.J. (eds), 1931,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editorial board: D. Goegory, Peter Haggett, David M. Smith, D.R. Stoddart), The Free Press.
 8) Buttimer, A., 1974, *Values in Geography*, Resource Paper 24, AAG.
 Powell, J.M., 1977, *Mirrors of the New World: Images and Imagemaker in the Settlement Process*, Dawson.
 Tuan, Yi-Fu, 1974, "Space and place: humanistic perspectives," in *Progress in Geography* 6, Edward Arnold.
 Gregory, D., 1978, *Ideology, Science and Human Geography*, Huthinson.
 Guelke, L., 1974, "An idealist alternative in human geography, *Annals of the AAG*, vol. 14, pp. 193~202.
 9) Smith, Neil, *op. cit.*, p.360.

데, 이를 주장하는 地理學者들을 이룸하여 소위 急進主義 내지는 批判主義의 地理學者라고 한다.¹⁰⁾ 이러한 爭點은 크게 自由論과 急進論으로 대두되었다. 自由論의 立場의 地理學者들은 社會參與問題에 있어 漸進論의 견해를 표방하면서 현재의 기존질서(즉, 資本主義의 理念)를 유지한 채 行政的·制度的 改善을 통해서 社會問題를 개선해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觀點에 입각한 地理學者들의 研究關心事는 社會福祉的 側面的 空間分極現象에 대한 진단(Morrill, Knox), 社會葛藤의 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空間的 再組織의 必要性(Cox), 福祉地理를 主題로한 人文地理學의 再構成(Smith), 環境淨化와 資源枯渴問題의 解決要件에 관한 研究 등으로 集約되며, 그들의 問題解決의 接近方法은 新地理學에서 定立 또는 利用하고 있는 空間分析接近方法으로 解決點을 찾으려는데 그 특징이 있다.¹¹⁾ 이에 반해서 急進論의 地理學者들은 社會主義, 즉 마르크스의 哲學에 立脚해서 地理學의 學問的 역할의 根本的인 再定立, 즉 學問에도 革命을 요한다는 견해를 표방한다. 이들 研究의 당면과제는 人間의 貧困問題를 지시하는 것(Peet), 立地와 관련된 社會의 不平等의 問題(Harvey), 第3世界의 近代化에 관한 研究(Brookfield)로 집약된다.¹²⁾ 이러한 研究를 주제로한 急進論者들은 地理學의 기존의 學理를 부정하며, 모든 分野, 즉 都市·經濟·政治·社會地理學은 물론 文化·歷史·地域地理에 이르기까지 공격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急進主義의 地理學은 특히 젊은 세대와 학생에 과급되어 資本主義社會의 모순을 지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社會問題에 대한 地理學의 研究者들 가운데 현실적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自由主義論의인 見解를 지닌 學者들이며 國家政策이나 社會 各分野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3. 空間分析地理學 : 成熟科學으로서의 移行過程¹³⁾

이른바 新地理學으로서의 空間分析地理學에 관한 學問背景과 地理學研究의 本質에 나타난 큰 變化가 科學의 方法論의 受用에 있었다는 점을 立場에서 진술한 바가 있다.

1950년을 전후하여 발달하기 시작한 地理學에 있어서는 그 論理가 實證的이었으며 理論化的 過程에서는 計量化的 方法이 많이 사용되었다. 결국 관찰될 수 있는 分布패턴과 空間關係를 설명하는 틀로서 理論化的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計量化的 技法이 많이 사용된 것이다. 地理學에서는 現象들을 관찰하여 그 對象에서 一般性을 추구하기 때문에 흔히 歸納的 方法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들은 또다른 現象을 설명하기 위해 통제된 條件속에서 假說을 검증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후에 一般化된 理論으로 定立하게 된다.

이러한 過程을 容易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計量的 技法이다. 모델을 간단한 式으로 표현하는데 數學이 사용되고, 假說檢證의 過程에서 統計學이 사용된다. 이렇게 볼 때 計量化的 새로운 地理學方法論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要素가 되었다.

한편, 論理實證主義에 立脚한 地理學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그 대상에 있어 많은 變化를 가져왔다. 종래 地理學의 研究對象이었던 地域이

10) Peet, J. R., 1977, "The development of radical geography in the United Stat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 1, pp.240~63.

11) Knox, P. L., 1975, *Social Well-Being: A Spatial Perspective*, Oxford Univ. Press.

Morrill, R. L., 1970, "Geography and the transformation of society: part II," *Antipode*, vol. 2, pp. 4~10.

Cox, K. R., 1973, *Conflict, Power and Politics in the City: A Geographic View*, McGraw Hill.

Smith, D. M., 1977, *Human Geography: A Welfare Approach*, Edward Arnold.

12) Peet, J. R., 1975, "Inequality and poverty: a marxist-geographic theory," *Annals of the AAG*, vol. 65, pp. 564~71.

Harvey, D., 1973, *Social Justice and the City*, Edward Arnold. Brookfield, H. C., 1973, "On one geography and a Third World," *Transactions*,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vol. 58, pp. 1~20.

13) 본절은 김은경의 "행태주의 지리학에 대한 소고"란 발표논문(성신학보 1983)에서 第2章「새로운 패러다임 : 논리실증주의」부분의 내용을 발췌하여 필자의 論旨를 전개하였음을 밝혀둔다.

空間概念으로 擴大되었고 計量化를 통해서 패턴과 프로세스를 연구하며 상이한 입지·분포패턴을 대조해서 一般性을 도출해내는 過程으로 變化되었다. 그런데, 法則과 理論을 찾고자 한 系統的方法의 뒤를 이어 地理學研究 분위기에는 좀더 진보된 地理哲學과 方法論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問題는 空間的 接近(spatial approach)과 體系的 接近(system approach)이라는 相互補完的인 接近方法을 통해서 空間分析에 관한 研究를 진작시킬 수가 있었다.

空間的 觀點에서의 接近은 研究焦點을 空間에 두었다. 地理學의 核心을 空間·空間關係·空間에서의 變化에 두고 人間行動에 影響을 미치는 要素로서 距離를 강조하였다. 距離는 영향력뿐만 아니라 距離의 概念測定과 意味에 대해서도 研究되었고 이를 바탕으로한 移動類型의 分析研究도 이루어 졌다. Haggett, Morrill, Nystuen 등을 위시해서 移動問題를 研究한 Stuffer와 Ullman 등이 특히 이러한 問題意識을 심화시켰다.¹⁴⁾

한편, 空間觀點에서의 研究는 空間에만 치중되고 時間의 概念이 간과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空間·時間·物質의 세요소가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體系論的 接近이 대두되었다. 體系論的 分析은 法則的 分析보다 좀더 統合科學化를 주장하는 시도였으며 體系論的 分析에서는 相互作用의 要素들이 全體의 形成을 위한 일련의 연결요소로 간주되었다. 體系論的 接近方法은 Chorley, Wilson 등이 理論的 틀을 만드는 데 공헌하였다.¹⁵⁾

1960년대 중반에 와서 實證主義 地理學의 內部에서는 자체반성이 이루어졌다. 實證主義者들은 모델이 현실을 기술하는데 부적합하며 이것의 근거가 되는 原理들의 社會의 空間組織의 側

面을 이해하는데 있어 빈약한 근거밖에는 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또한 모델은 그 자체로서는 價値있고 目的에 충분하지만 모델군들의 個別要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고 모든 一般化에는 例外와 限界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問題點들이 제기되면서 論理的 實證主義의 理論的 接近方法에 수정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空間研究에 있어 人間の 行態的 要素를 강조함으로써 어떤 요소로 인해 空間에서 어떤 패턴이 형성되는가하는 것보다 왜 어떤 행동이 일어나느냐하는 空間패턴의 展開過程에 더 關心을 集中시키게 된 것이다. 이러한 行態主義的 接近은 Kates, Wolpert, Gould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¹⁶⁾

이들은 地理的 空間變數를 고려하면서 다른 社會科學에서 얻어진 意思決定에 대한 綜合的 概念들을 活用하였다. Kates는 洪水可能性이 짙은 지역주민들의 행동이해를 목적으로한 연구에서 行態論을 전개하였다. 그는 意思決定時 認知한 環境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지식의 기반위에서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Wolpert는 規範論的 接近方法에 따라 行態主義의 代案을 많은 人文地理學者들에게 소개하였다. 그는 經濟的 社會的 環境의 差異가 意思決定의 差異를 가져온다는 經濟人의 有限性을 고려하여 移住問題에 대한 研究를 하였다. 그는 行態主義地理學이란 人間行動의 기초위에서 地理的 理論을 결합한 것이며, 명백한 空間構造, 空間關係를 내포한 社會的·心理的 體系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많은 研究家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진 行態的 分析의 한 側面이 mental map이라

14) Haggett, P., 1965, *Locational Analysis in Human Geography*, Edward Arnold.

Morrill, R. L., 1970, *The Spatial Organization of Society*, Wadsworth.

Nystuen, J. D., 1963, "Identification of some fundamental spatial concepts," *Papers of the Michigan Academy of Science*, vol. 48, pp. 373~84.

Ullman, E. L., 1956, "The role of transportation and the bases for interaction," In W. L. Thomas (editor), *Man's Role in Changing the Face of the Earth*, Chicago Univ. Press.

15) Chorley, R. J., 1962, "Geomorphology and general systems theory," *Professional Paper*, 500-B, U. S. Geological Survey, Washington.

Wilson, A. G., 1967, "A statistical theory of spatial distribution models," *Transportation Research*, vol. 1, pp. 253~69.

16) Kates, R. W., 1972, "Review of perspectives on resource management," *AAAG*, vol. 62, pp. 519~20.

Wolpert J., 1964, "The decision process in spatial context," *AAAG*, vol. 54, pp. 337~58.

는 概念이다.¹⁷⁾ 이는 意思決定의 지침이 되는 環境을 지도화한 것이다. Gould는 mental map의 概念을 설명하면서 人間의 空間的인 行動이 관심사일 때 人間이 주위 空間에 대해서 가지는 精神的인 이미지는 地表上에서 人間行爲의 構造, 類型, 過程을 이해하는 실마리로 보았다. 立地決定은 知覺된 環境의 質과 연관되며, 사람들은 그들의 環境에 대한 評價가 客觀的인 判斷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960년대 후반 Hägerstrand는 時間과 空間의 座標를 근거로 해서 人文地理學의 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¹⁸⁾ 그는 空間概念에다 時間概念을 첨가해야만 실제 空間體系가 명료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여 時空地理學(time-space geography)을 제시하였다. 그의 時·空地理學은 生活의 質(quality)에 초점을 맞추며 개인들간에 관련된 상황을 평가하는 前後關係의 接近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人文地理學에 있어 空間科學의 接近의 모델理論 主張者들이 新古典 經濟學派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에 반해서, 行態主義地理學은 보다 풍부한 경험적 내용을 지니는 社會學, 心理學등의 社會科學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行態主義地理學에서는 空間科學의 接近에서 모델이 현실과의 대비에서 불합리하다는 점에 자극받아 理論의 근거가 되는 관찰에 새로운 요소를 투입하였다. 行態論에서는 계속된 관찰을 통한 一般的인 說明을 目的으로 하여 歸納的인 接近方法을 택하였다. 그러나 行態的 接近方法은 空間科學의 接近의 패러다임에서 완전한 탈피를 이루지 못하였다. 空間體系論의 接近이 확실한 假定에 기초하여 人間行動을 단순화시키고 그 原理에 따라 空間패턴을 추구하였다면 行態的 接近은 歸納的方法으로 空間行爲의 규명에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때 行態主義地理學은 各意思決定者들로부터 資料를 수집하는 方法의 發展을 통해 人文地理學에 영향을 미쳤으며 地理

學과 다른 社會科學과의 연관을 증대시켰다는 점에서 地理學發展에 공헌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Pred는 行態的研究에서의 一般的인 傾向에서 한걸음 진보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經濟人에 기초하여 현존 立地理論을 비판하고 行動模型(behavioral matrix)의 사용을 제안하였다.¹⁹⁾ 이는 外的 環境의 영향으로 인한 動的 要素를 도입하여 行動의 一般法則을 推論한 것이다. Pred는 行態主義地理學을 일보 진보시켜 實證主義에 기반을 둔 行態主義地理學을 1970년대 이후의 地理學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評價된다.

이렇게 볼때 論理實證을 바탕으로한 地理學은 지난 30년간 空間(地域) 研究의 基礎學問으로서 扎实的인 自體成長과 發展을 거듭하여 왔다. 실제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地理學이 개발한 空間 모델, 空間理論 및 分析方法은 都市 및 地域計劃分野를 비롯한 政策科學, 地域科學 등 많은 他隣接學問에서 널리 受用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空間(地域)과 관련된 問題를 진단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應用科學으로서도 널리 活用되고 있다. 명실공히 地理學은 종래의 「남의 理論을 消費하는 學問에서 供給하는 學問」으로 成熟한 것이다.

4. 地理學에서의 패러다임 ; 理解와 爭點

(1) 範疇的 패러다임의 關係

앞에서 지난 1세기 동안에 걸쳐 地理學史에 비쳐진 地理學의 思潮變遷에 관한 脈絡을 4개 類型의 패러다임으로 區分하고 그에 대한 特性을 小考하였다. 4개 類型의 패러다임에서 發見되는 하나의 共通된 特徵은 각 패러다임의 形成背景의 裏面に 哲學思想들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點이다. 소위 宇宙論的 目的論的 世界觀과 결부된 現代地理學 初期의 地理哲學思想을 비롯해서 人

17) Gould Peter and White, R., 1974, *Mental Maps*, Penguin Books.

18) Hägerstrand, T., 1968, *Innovation Diffusion as a Spatial Process*, Chicago Univ. Press.

19) Pred, A.R., 1967, 1969, *Behavior and Location: Foundations for a Geographic and Dynamic Location Theory*, Part I and II, Lund: C.W.K. Gleerup.

間經驗世界로서의 地域像을 哲學的 認識論的 思考에 기초하여 解釋하는 立場, 또 哲學的 辨證法的 論理에 입각한 地理學의 目的性을 비판하는 것 등은 모두가 哲學思想과 무관하지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이들 哲學思想들은 地理學研究의 目的意識과 方法論上에 틀을 제시해 주었는가하면 思潮變遷에 향도적 구실을 하였다. 한편 이들 哲學思想間的 異論과 反論으로 提起된 爭點들이 바로 地理哲學思潮에 연결되므로 인해서 4개 패러다임 相互間的 논란과 反작용의 소지가 되고 있음도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들 哲學思想들의 엇갈린 주장들이 哲學世界에서 並置·常存되는 것이라면 그에 따른 地理學에서의 4개 類型의 패러다임도 相互間的 爭點이 논증될 수는 있으나 평행관계를 유지하는 패러다임으로서 存置될 수 있다는 假定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러한 假定이 오류가 아니라면 4개 類型의 패러다임 關係를 우선 地理學에서의 範疇的 패러다임(categorial paradigm)이라고 규정지을 수가 있겠다. 그런데 이 4개 類型의 패러다임은 그것이 大·小패러다임에 關係없이 실제로 各者 特有的 學風을 確立·堅持하고 있다. 그러한 關係에서 地域地理學, 空間分析地理學, 解釋學的 地理學 및 急進論的 地理學은 範疇的 패러다임의 關係로 구성되어 있음이 確實하다.

다음 地域地理學과 解釋學的地理學을 比較해 볼 때, 여러가지 觀點에서 兩패러다임의 類似性이 發見된다. 첫째는 地理學에서 오랫동안 다루어온 「景觀(Landschaft)」으로 概念화된 「地域(region)」이 地理學의 研究의 基本主題라는 點이다. 요컨대 1960년대 이후 解釋學的 立場에 선 地理學者들의 主要關心을 단적으로 要約해 본다면 그것은 人間이 經驗하고 있는 「life world」로서의 「地域」이다. 결국 「地域」에 대한 認識次元이 다를뿐 그 概念을 구성하는 形質은 같은 要素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 둘째 解釋學的 地理學이 生活空間에서 「특정한 것의 事와 象」을 연구할 것을 강조하는 것과 過去の 地理學이 地表의 固有性研究를 地理學의 目標로 삼아 「差異」를 규명하려는 것과는 研究目的의 意識面에서 脈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兩패러다임은 接近方式에 있어서 固有性과 差異를 강조한 나머지(즉, 一般化와 理論的 說明의 拒不) 記述에 중점을 두고 이른바 idiographic 한 方法論上의 側面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든지 하는 것은 兩패러다임이 같은 입장인 것이다. 따라서 解釋學的 地理學의 패러다임은 종래의 地域地理學의 그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반면 오히려 地域地理學的 論究의 屬에 불과한 亞流라고 하겠다.

한편 空間分析地理學과 急進論的地理學의 關係에서 보면, 역시 「地域」²⁰⁾은 兩패러다임의 研究焦點과 잇슈로 부각되는 對象이다. 空間分析地理學에서는 地域을 空間概念으로 확대하여 空間分析의 學理를 발전시키고 「相對的 空間」認識을 통해서 地表空間의 效率性을 추구하는데 研究의 力點을 둔다. 이에대해 急進論的地理學에서는 地域, 즉 空間의 社會的·環境的 質의 當面課題들에 대한 잇슈에 초점을 맞추어 空間問題를 파악하려는 것이 특징이다. 요컨대 地表空間에 관한 人間의 問題는 兩패러다임이 모두 중요시하는 研究의 對象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急進論者의 패러다임은 人間의 空間問題와 關係하여 特定集團의 問題에 置重하는 경향이 높다. 이에대해 空間分析地理學은 科學의 理想인 價值中立의 次元에서 人間의 모든 集團과 全人類의 共同關心事가 되는 空間問題를 전제로 空間研究의 目標을 設定한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空間分析地理學은 科學의 理想과 脈을 같이하며 學問으로서의 社會參與에 대한 意識을 보다 高次元의인 次元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急進主義地理學이 社會잇슈로 표방하는 空間問題의 當面課題들은 모두가 空間分析地理學의 관심속에 포함되는 문제들이 아닐 수 없다. 결국 急進主義地理學의 理想은 空間分析地理學의 理想에 포섭된다는 點에서 그것은 論理實證을 바탕으로한 空間分析地理學의 패러다임의 한 亞流라고 하겠다.

이상의 論議에서 60년대 以後에 발달한 解釋學的地理學은 종래의 地域地理學의 패러다임에 귀속되고 70년대 以後에 발달한 急進主義地理學

20) 여기서 「地域」은 단순히 地表의 延長으로서의 空間을 의미하며 앞의 「地域」과는 表音이 같은 同意語가 아닌 點에 유의할 必要가 있다.

은 空間分析地理學의 理想에 포섭됨으로써, 其實 地理學에서의 4개 類型의 範疇의 패러다임은 2개의 패러다임, 즉 地域地理學과 空間分析地理學으로 再分類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再分類된 2개의 패러다임은 歸屬과 包攝된 패러다임에 對해서 大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兩大패러다임의 相異性

흔히 1950년대를 基準하여 그 前後時期의 地理學을 「傳統地理學」對「新地理學」의 時代로 區分하여 부르는 것이 地理學界의 一般的 常識이다. 그리고 1950년대 以前에 地理學研究의 모델로서 主流를 이루었던 「地域地理學」과 그 以後의 地理學研究의 主모델이 되다시피한 「空間分析學」을 모를지기 地理學의 兩大패러다임으로 간주하려는 것이 地理學을 하는 사람들의 支配的인 견해이기도 하다. 이 두 패러다임은 學問的 立場에서 여러가지로 相異한데 그 근본적인 差異點을 세가지로 摘要해 볼 수 있다.

첫째, 地理學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주제는 地表로서의 地域性에 관한 연구이다. 그런데 이 두 패러다임은 地域研究가 地理學의 主된 目的이란 點에서는 一致를 보이고 있으나, 地域概念을 규정하는 차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地域地理學은 최근까지도 形而上學的·目的論的 次元의 世界觀을 바탕으로 地域의 機能과 全體의 特性을 파악하려 하였다. 특히 1960년대의 解釋學的地理學은 인간의 주관에 입각한 認識論的인 哲學思想을 바탕으로 地域이란 實體를 개념화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地域에 대한 概念構成의 要體가 바로 哲學的 認識인 것이다. 地域을 보는 立場은 그래서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해서 新地理學으로서의 空間分析地理學은 地域을 地表의 空間을 구성하는 要素들간의 「體系(system)」로 파악하려는 立場이다. 따라서 地域의 實體에 대한 特性과 機能을 밝히는데 논리적이고, 순차적인 概念構成上的 객관적인 기준의 틀을 제시한다.

둘째는 전적으로 地理學研究의 方法論上에서 근본적인 差異가 있다. 地域地理學에서는 地域研究가 地表의 固有性에서부터 출발하여 地域內

現象(變數) 相互關係들의 統合的 特性을 확인하고, 그에 근거한 地域間的 差異性(areal differentiation)을 밝히려는데 그 主안점을 둔다. 이때 관찰과 기술 그 자체가 地域 全體의 現象을 설명하는데 최상의 接近方法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地理學에서의 理論的 作業은 無用한 것으로 치부하며 지리적 현상을 관찰하여 기술하는 것이 곧 接近方法의 出發이자 끝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空間分析地理學에서는 地域은 서로 다르지만, 즉 자기 상이한 조건을 내포한 地域間이라도 그 안에서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지리적 사상이 관찰됨으로써 이들 현상들에 대한 地域의 類似性(areal similarity)을 밝히려는데 그 主안점을 둔다. 그래서 관찰과 조작적인 증명과 확인의 과정을 통해서 地域相互間的 地理的 現象에 대한 一般性을 도출할 수 있다고 믿고, 그러기 위해서는 記述的 方法위에 論理實證的 方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결국 地域研究에 나타난 傳統地理學의 接近方法은 地表의 고유한 現象과 그에대한 景觀의 分布와 形態 그 자체에 대한 기술에 중점을 둔 나머지, 方法論上에 이른바 idiographic 한 측면이 강조되어 있는데에 반해서, 新地理學의 接近方法은 지표현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動因(agency)간의 작용에서 연유되는 過程(process)에 보다 역점을 두어 이른바 nomothetic 한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셋째, 地域地理學에서는 地表現象의 경험세계에 대한 기술과 해석이 주목적인 관계로 地域의 顯在的 現象(what is)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地域에서 기대되는 現象(what will be) 또는 地域의 當爲的 現象(what ought to be)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터취를 피하려는 立場이다. 이에 대해서 新地理學은 地域의 現實과 顯在性은 물론 地域現象에 대한 예견성과 규범성의 문제까지도 地理學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立場이다.

이와같은 兩立場은 地理學의 性向과 氣質에서도 잘 반영되어 나타나는데 地域地理學的 研究 분위기와 그 내용은 보다 아카데미한 차원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높는데 비해서 新地理學은 그것이 空間分析을 위한 기초과학적이고 실용과학적인 학문분야로 나아가고 있다.

(3) 地域地理學 對 空間分析地理學 :

Evolution or revolution?

Chisholm은 그의 저서 “Human Geograpy: Evolution or Revolution?”의 終章의 초두에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質問, 즉 지난 30년동안에 (10년은 필자가 추가함) 경험한 地理學의 變化(空間分析地理學으로서의 新地理學을 지칭하는 것으로 필자는 해석함)를 곧 革命으로 간주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난 30년동안에 있어서 다루어진 地理學의 研究主題가 과연 過去地理學의 그것과 확인될 수 있을 정도로 달라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그 해답을 추구하고 있다. 그의 自問自答은 이렇하다. 地理學의 研究主題는 서서히 변화했는데 비해서 分析의 技法, 즉 方法論的 기량면에서는 실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革命”을 체험한 것이라고 못박아 주장하고 있다.²¹⁾ 그러나 그는 revolution에 대한 성급한 결론을 회피한 채, 의중에는 新地理學을 傳統地理學에 대한 革命으로 간주하면서도, 地理學의 研究主題가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게 없다는 점을 시사함으로써 그는 新地理學 즉 空間分析地理學을 地理學의 “evolution”이라고 매우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주장이 타당할 지 모른다. 왜냐하면 1950년대를 기준으로한 그 전과 그 이후의 地理學은 地域을 主題로한 研究의 目的面에서는 指向하는 바 그 goal이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즉 地域研究란 同一目的을 共有하면서, 전적으로 그 接近方式에 있어서만이 근본적인 差異가 현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Johnston은 그의 論文 “Paradigms and revolution or evolution?: observations on geography since the Second World War.”에서 지난 30년동안에 성숙된 新地理學은 Kuhn의인 패러다임의 견지 즉 정상과학(normal science)으로 간주하기에는 地理學者들 전체의 合意(consensus)가 불충분하며 地理學이 指向하는 目的을 모두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地理學의

變遷過程을 Kuhn의 패러다임의 틀에 입각하여 평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못박는다.²²⁾ 결국 그도 新地理學이 地理學에서의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그것이 정상과학(normal science)이 될 수 없다는 觀點에서 新地理學의 科學的 革命(scientific revolution)을 부인하였다. 그리고 그는 新地理學을 패러다임으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학문의 발달과정중 생성될 수 있는 여러 學問世代(academic generations)중의 하나라고 보는 입장을 견지하며, 패러다임의 형성은 결국 점진적인 절차와 단계를 거쳐 패러다임으로서의 성숙과정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또한 패러다임의 形成過程과 性格을 이해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7가지 準則을 들어서 지난 1945년 이래 人文地理學의 發達行態에 대한 풀이를 하고 있다.²³⁾ 이것은 곧 新地理學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가하는데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인 해석을 자기식으로 한 것이라 하겠다. 그도 결국은 자기모델에 비추어 新地理學을 地理學의 革命으로 보는 대신에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한단계의 evolution으로 평가한 것이다.

地理學은 인간이 발달고 살고 있는 「땅」, 즉 地域을 연구대상으로 하는한 思辨的이기 보다는 우선 現實性을 바탕으로한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傳統의 地理學分野에 내려진 思辨的 要素의 뿌리는 너무도 깊다는 사실을指摘하지 않을 수가 없다. 思辨的 地理哲學은 地表의 現實空間에 관한 문제로서의 地域研究를 非實際的·非空間的·非科學的으로 유도하려는 경향마저 보인다. 그들 연구가 비록 地理學的이라고 주장되고 知識的 體系를 갖춘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哲學的 認識論을 바탕으로 하는한 地域에 관한 연구가 하나의 目的을 향하여 합의된 地域地理學으로 나아가기는 극히 어려울 것 같다. 실제로 최근에 와서 이들 地理學의 研究關心은 매우 多岐多樣해졌으나 地域地理學이라는 概念(모델)아래서 상호 학문적 연구의 유대가 缺如된 채 그 研究性向이 폐쇄적이며 비교류적인 자

21) Chisholm, M., 1975, *Human Geography: Evolution or Revolution?*, Penguin Books, pp.171~2.

22) Johnston, R.J., *op.cit.*, pp.199~200.

23) Johnston, R.J., *op.cit.*, pp.201~202.

閉症現象마저 노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지난 30년 동안에 성숙된 新地理學은 地域研究에 있어서 「空間分析」에 초점을 맞추어 地理學自體의 學理的 性格을 뚜렷이 부각시킬 수 있었다. 특히 空間分析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된 方法論上的 地理學的 idea 들은 地理學을 「空間分析科學」의 次元으로 끌어 올려 學問으로서의 identity 를 確立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이러한 성숙과정에서 地理學의 모든 sub-discipline 에 미친 영향은 지대할 뿐더러 新地理學이 他學問과의 지식에 관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모름지기 地理學은 현실적 차원에서 「地域」을 보는 시각이 필요하고 또 강조되어야 한다. 人類/人間과 관련한 地表의 問題 즉 地域의 問題는 모두가 현실적으로 대처되어야 하고 科學的으로 풀어야 할 것들이다.

지난 30년간의 新地理學은 이른바 「空間科學」이란 차원에서 재정립된 地理學이다. 傳統地理學에 대한 反作用이 내재되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新地理學이 앞으로의 地理學이 나아가야 할 進路에 새로운 地理哲學과 方向을 제시했으며 그에 대한 이정표를 함께 제시했다는 점이다.

新地理學을 傳統地理學에 대한 evolution 정도의 패러다임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新地理學의 理想을 빙산의 일각으로만 보는 격이다.

5. 結 語

地理學科가 史上 最初로 獨逸의 Leipzig 大學에 設立되고 地理學이 學問世界에서 專門分野로 성숙하기까지 약 10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本稿에서는 지난 1세기 동안에 地理學의 發達過程에 나타난 思潮의 變遷을 패러다임의 견지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地理學에서의 패러다임은 理解의 次元에서 볼 때, 그것은 地理學의 궁극적 연구목표인 地域에 대한 概念設定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地域에 대한 개념규정의 다양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地理學의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첩경이다. 또 당대의 地理學

者들이 地域에 대한 概念構成을 定立하는데 있어서, 哲學의 認識論의 思考를 바탕으로한 世界觀(地域觀)과 무관치 않았으며, 地域研究를 위한 接近方式의 方法論도 哲學思潮의 變化와 不可分の 關係를 지니고 있음이 발견된다.

지난 1세기 동안에 變遷한 地理哲學과 方法論은 4개 組의 範疇的 패러다임으로 묶을 수가 있다. 즉 目的論 또는 宇宙論의 世界觀에 입각한 地域誌的(chorological) 地域地理學, 論理實證主義에 입각한 空間分析地理學, 人本主義思想과 認識論(觀念主義, 現象學, 實存主義)에 입각한 解釋學的地理學, 그리고 社會問題 參與에 입각한 急進主義地理學이 그것이다. 그런데 패러다임 상호간의 關係를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결국 認識論의 次元의 地理學과 實證論의 次元의 地理學으로 크게 大別되는 것이다.

실로 地理學은 이 두 地理學의 패러다임이 주축이 되어 현재의 地理思想과 方法을 이끌어 왔 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두 패러다임에 대한 關係가 地理學에서의 evolution 이나 아니면 revolution 이나에 대한 論議로까지 비화되어 爭點이 되고 있는데, 많은 地理學者들은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한 對答을 회피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문제는 역시 地理學者들의 主觀이 수반되는 形而上學的인 課題라고 본다. 그러나 인류에게 하나밖에 없는 地球의 地表空間에 관한 현실적 問題를 直視하고 또 人間의 生存과 直結된다는 點에서 볼 때 앞으로의 地理學의 學問的 座向의 性格이 어떻게 定立되어야 할 것인가하는 問題에 대하여 모든 地理學者들은 각별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촉구된다.

「新地理學」에 대하여 언급하는 者가 많다. 그러나 누가 무어라해도 地理學은 實用科學의 立場을 堅執해야 할 學問일 수 밖에 없다. 지난 30년간에 뿌리를 내린 空間分析地理學은 成熟된 學問으로서의 그 歷史가 일천한 것이지만, 實用科學으로서도 그 業積은 대단한 것이었다. 新地理學 즉 空間分析地理學은 地理學의 올바른 研究目的과 里程表를 제시해준 地理學의 새로운 「모델」이며 다른 範疇的 地理學의 패러다임에 對置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Ideas and Problems in Geographic Paradigms

Inn Kim*

Summary;

This study has discussed about the geographic paradigms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and methodological changes in the studies of geography, specially for the past century.

The modern geography, as in many other subject disciplines, has undergone rapid changes in recent years, specially in the sub-disciplines of the academic geographic society.

Geography today is regarded as a social science. Hence, the central concern of geographic studies has shifted its interests from the broadly oriented concept of "regional study" to more specifically formalized concepts such as "spatial analysis," "humanistic essence," and relevance of societal problem," during the last three decades and rapidly during the recent immediate decade.

The aim of this study is divided into three folds: 1) to review the developmental aspects of geographic disciplines at a stance of paradigm notion, 2) to search for the progressive aspects of the New Geography as a matured science, and 3) to define whether the recent problematic arguments of the New Geography against the Traditional Geography is an evolution or a revolution.

It is significant that philosophical thoughts

have influenced the foundation and developmental changes of the disciplines in the geographic academism. This study has grouped the influences as the following:

1) the regional geography in a broad disciplinary sense.

2) geography as spatial analysis based on positivism.

3) the hermeneutic geography based on philosophical epistemology.

4) the societal geography based on criticism. However, the four different groups, defined as categorical paradigms, could be re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with respects to their essential goals and methodology, namely the traditionally oriented regional geography and the New Geography to be distinguished as spatial science. The latter has greatly contributed in developing theoretical explanations and solving practical problems in geographic study.

It is worthwhile to remark that the development of ideas of New Geography, ideas of geography as spatial science, is a new paradigm in the nature of revolution rather than an evolution. And also there is no reason to replace the New Geography with the other paradigms currently developed within the geographic academic society.

Journal of Geography, 10, 1983, 12, pp.15~25.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